

# 사순절 묵상집



## 희망

레이 존스 목사

골로새서 1:18-20

대림절은 교회력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4주 동안 기대에 차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제 신앙을 형성해 왔습니다. 신앙 초기에 비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졌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은 제 신앙의 확고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없지만, 매일 매일 사랑의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되는 과정을 통해 희망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라납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는 아름답지만 상처입은 세상 속에 치유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축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기다립니다.

저는 리처드 로어가 희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희망을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 수중 음파 탐지기라고 설명합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가 물속에서 물체를 감지하는 시스템인 것처럼, 희망은 탐욕, 폭력, 불의, 두려움,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희망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집니다. 우리는 아름답고도 두려운 세상에서 복음의 음파 탐지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척박한 곳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제가 하는 훈련 중 하나는 성경을 통해 희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20절은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읽는 구절인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어떤 기분과 행동을 하고 있는 상관없이 부름 받은 삶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상실감과 고통의 시기에,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거나 좋은 소식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저는 이 성구를 찾습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이 의역한 골로새서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으뜸이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셨으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너무 넓으시고 광대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여도 넉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등 우주의 모든 부서지고 어긋난*

조각들이 제대로 고정되고 활기찬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은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덕분입니다. (골로새서 1:18-20, 메시지 성경)

대림절의 준비는 언제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빛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희망의 음파 탐지기는 "기쁨의 소리를 반복"합니다.

